



솔내음 도서관



도서관 소식

- 2019학년도 다독상 시상 기준(상반기 3.2~6.30) (하반기 7.1~11.30)

1-2학년 대출권수 50권 이상 독서록 20페이지 이상

3-4학년 대출권수 40권 이상 독서록 20페이지 이상

5-6학년 대출권수 30권 이상 독서록 20페이지 이상

- 3권 대출 및 연체 사면 쿠폰 받는 법

목요일 아침 8시 40분에 도서관에서 읽어주는 그림 동화 이야기 듣기

도서관의 독서록 양식으로 독서록 2편 쓰기

- 예쁜 파일 받는 방법

도서관의 독서록 양식으로 독서록 5편 쓰기

- 매주 목요일 아침 시간에 1-2학년은 교실에서 어린이 도서 연구회 어머님들께서 3-6(희망자)는 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이 책을 읽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이와 토크토크 1학기 파일 제출 기간은 7월 4일까지입니다. (제출처:도서관)



송우초등학교도서관소식지

19-3호 2019. 6. 17.

발행처: 송우초등학교

발행인: 백수만

편집인: 조윤경

도서관에서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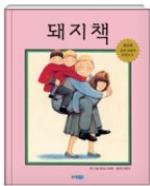
- ☺ 말소리는 소곤소곤
- ☺ 발걸음은 사뿐사뿐
- ☺ 오락은 ~no

추천도서

제목: 돼지책

지은이: 앤서니 브라운

출판사: 웅진 주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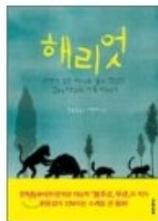
여성 문제와 가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어린이 책에서 표현하기 무겁게 느껴지는 주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작가 앤서니 브라운은 군더더기 없고 유머러스한 글, 치밀하게 계산되어 볼거리가 풍성한 그림과 화면 구성으로 진지한 주제를 설득력 있고 쉽게 전달합니다.

제목: 해리엇

지은이: 한운섭

출판사: 문학동네어린이



175년 동안 바다를 품고 살았던 갈라파고스 거북 이야기.

동물에

빛대어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우화나 알레고리를 훨씬 넘어서 감동과 충격을 준다. 그것은 역사성의 무게와 지혜로 다음 세대를 묵묵히 감싸는 해리엇과 같은 진정한 어른이 지금의 인간 현실 속에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제목: 아몬드

지은이: 손원평

출판사: 창비



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났다! 영화와도 같은 강렬한

사건과 매혹적인 문체로 시선을 사로잡는 한국형 영어덜트 소설 『아몬드』.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해진 공감 불능인 이 시대에 큰 울림을 주는 이 작품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의 특별한 성장을 그리고 있다.

출처:에스24

도서관 이용시간

☺ 오전8:30-오후4:30

월요일~ 금요일 이용가능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도서관 자료대출 안내

☺ 학생 : 1인 2권

☺ 대출기간: 7일 (1회 연장가능)

☺ 연장신청 :

직접방문

학부모님께서도 이용동의를 작성 후 바로 대출 가능합니다.

문의: 송기생도서관

독후감의 4요소

글은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독후감도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독후감의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이것이 독후감의 중심이다. 그런데 독후감을 쓰는 학생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누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가?'다. 글은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독후감에서는 누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완전히 다르다. 독후감을 쓸 때는 실제로 글에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누구에게 말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독자를 설정한 뒤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야 한다. 독후감이 뻘하고, 재미없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독자'가 분명하지 않은 채로 '막연한 이야기'를 해서다. 독후감을 잘 쓰고 싶다면 '누구에게 쓰는 글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독후감은 읽은 뒤에 느낌을 적는 글이다. 따라서 반드시 책 내용이 독후감에 드러나야 한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잘 드러나야 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와 깊은 관계가 있는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줄거리든, 특별한 사건이나 인물이든, 단 할 줄의 문장이든, 책 속에 그려진 삽화든 상관없다.

글은 내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은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 주어야 한다. 나만의 것을 전달해야 한다. 세상에서 오직 나만의 것이 무엇인가? 오직 나만이 들려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바로 경험이다. 경험만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며, 진실이다. 막연한 생각, 도덕적 의견, 나는 할 수도 없는 공허한 주장이나 충고는 모두 거짓이다. 진실한 글만이 감동을 준다. 글에는 나의 이야기가 담겨야 한다. 나만의 이야기가 내 글의 힘이다.

독후감=독자+중심생각+책 내용+경험

하나 더 추가한다면 '형식'이다. 형식은 독후감의 다섯 번째 요소다. 독특한 형식은 글의 감동을 더해 준다.

출처: 토론하는 거실, 글 쓰는 식탁 中

멋져요!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친구들 (2019.05.01~05.31)

*정확한 성명은 도서관 게시판을 확인하세요.

위	성명	학년 반	대출권수
1	유*상	6-3	42
2	박*빈	1-2	34
2	김*은	4-1	34
3	권*경	5-1	25
4	이*례	3-2	22
5	김*우	3-1	21
6	이*아	6-2	17
6	이*현	4-2	17
7	김*빈	1-2	16
8	김*우	1-1	14

솔-내-음 삼행시

4-1 정*린

솔- 솔내음! 도서관은
내- 내 쉬는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음- 음~ 엄청난 도서관이다.

2-2 윤*인

솔- 솔내음 도서관이 최고!
내-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다 있다. 최고!
음- 음~ 즐거움이 있는 솔내음 도서관!

3-1 정*윤

솔- 솔내음 도서관을
내- 내마음에 저장하고
음- 음~ 솔내음 도서관! 내가 고백할게요. 사랑해요.

3-2 허*아

솔- 솔내음 도서관은
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서관
음- 음악 같은 도서관

4-1 이*혁

솔- 솔내음 도서관에
내- 내가 왔다.
음- 음.....뭘 빌릴까?

